

목차.

chapter.1 화법

2022학년도 수능	5p
2022학년도 9평	9p
2022학년도 6평	15p
2021학년도 수능	21p
2021학년도 9평	25p
2021학년도 6평	29p
2020학년도 수능	35p
2020학년도 9평	41p
2020학년도 6평	45p
2019학년도 수능	49p
2019학년도 9평	53p
2019학년도 6평	57p
2018학년도 수능	61p
2018학년도 9평	67p
2018학년도 6평	73p

chapter.2 작문

2022학년도 수능	80p
2022학년도 9평	86p
2022학년도 6평	93p
2021학년도 수능	98p
2021학년도 9평	104p
2021학년도 6평	110p
2020학년도 수능	116p
2020학년도 9평	122p
2020학년도 6평	128p
2019학년도 수능	134p
2019학년도 9평	140p
2019학년도 6평	146p
2018학년도 수능	152p
2018학년도 9평	158p
2018학년도 6평	164p

chapter.3 화작용합

2022학년도 수능	170p
2022학년도 9평	178p
2022학년도 6평	186p
2021학년도 수능	194p
2021학년도 9평	200p
2021학년도 6평	208p
2020학년도 수능	216p
2020학년도 9평 (1)	223p
2020학년도 9평 (2)	227p
2020학년도 6평	232p
2019학년도 수능	240p
2019학년도 9평	248p
2019학년도 6평	256p
2018학년도 수능	264p
2018학년도 9평	272p
2018학년도 6평	280p

chapter.4 종합

2022학년도 수능	288p
2022학년도 9평	292p
2022학년도 6평	296p
2021학년도 수능	300p
2021학년도 9평	304p
2021학년도 6평	308p
2020학년도 수능	312p
2020학년도 9평	316p
2020학년도 6평	320p
2019학년도 수능	324p
2019학년도 9평	328p
2019학년도 6평	332p
2018학년도 수능	336p
2018학년도 9평	340p
2018학년도 6평	344p

정답표	348p
------------	------

Chapter.1 화법

[1] 종류와 특성

발표 / 연설 / 강연 / 라디오 방송

<말하기 방식>

1. 주제 선정 목적 파악
2. 용어 정리
3. 청중에게 질문 던지기(주로 경험을 물어봄 / 청중의 반응을 확인)
4. 시청각 자료 활용
5. 자료의 출처 언급 [전문가의 말 인용]
6. 주제 관련 어휘 설명
7. 마지막에 요약 / 청중에게 권하기
8. 사례 제시
9. (순서 언급)
10. (비유적 표현 사용)

[2] 목표

1. '화법의 유형'이 아닌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
2. 돌아와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납득한다.
3. 행동 범위를 정한다는게 무엇인지 인지한다.
4. 평가원의 흐름과 패턴을 느낀다.

문항 분석

첫번째 지문인 화법은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 '동일'하다. 특히 올해에 와서는 확정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문항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독해에 있어 큰 차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간단한 문항 분석을 진행해보겠다.

1문항

첫번째 문항의 경우 '위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발문으로 나온다. 이 문제에서 말하기 방식이 출제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인지를 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빈출된 유형과 주로 제시되는 위치를 설명해보자면,

1. 주제 선정 목적 파악(초반)
2. 용어 정리(초~중반)
3. 청중에게 질문 던지기(주로 경험을 물어봄 / 청중의 반응을 확인)(중반)
4. 시청각 자료 활용(중반)
-주의점: 사진, 통계자료, 그림 등은 시각 자료이고, 동영상 자료는 시각 자료이자 청각 자료이다. 이 차이는 구분하자.
5. 자료의 출처 언급 [전문가의 말 인용](중반)
-'~에 따르면', '~에 의하면' 과 같은 표지가 존재한다.
6. 주제 관련 어휘 설명(초반)
7. 마지막에 요약 / 청중에게 권하기(후반)
8. 사례 제시(중반)

이를 인지하며 읽기 바란다. 문항을 판단하는 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2문항

두 번째 문항의 경우 21학년도 수능까지는 화법과 작문에 10문제가 출제되고, 문법이 5문제가 출제되어, 매체에 대한 문항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 2번 문항이었는데, 발표에서 매체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였다.

하지만, 언어와 매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되며, 2번 문항은 22학년도에 출제된 모든 평가원 문항에서 '말하기 계획'으로 바뀌었다. 즉, 지문에 계획했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하지만, 바뀌기 전과 후가 모두 풀리는 매커니즘은 단순한 '일치불일치'이다. 즉,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을 읽었을 때 해당 내용이 있었고,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판별하면 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 돌아가서 읽을 필요가 있다. 다만, 돌아가는 내용도 그 위치가 중요하니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겠다.

3문항

세 번째 문항의 경우 '~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 문항의 경우 실제로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이지만 주의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배경지식과의 비교
2. 아쉬운 점(주로 발표에서 미흡했던 설명)

- 3.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
- 4. 예측하며 읽기
- 5. 추론하기
- 6. 점검하며 읽기

이러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화법은 한번에 읽고 풀어야지!'와 같은 괜한 자존심은 버리고 그냥 필요하다면 돌아가서 읽자. 다만, 돌아가더라도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는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독해가 필요한지 다뤄보겠다.

지문 독해법

화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혹자는 '그냥 독서처럼 읽어라'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다. 화법과 작문은 독서와는 다른 과목으로 다른 성취기준을 갖고 있다. 독서에서는 세부내용을 읽고 적절한 추론까지 요구하지만, 화법에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요구는 없고,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중심으로 독해할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렇다면 맥락을 고려한 독해는 무엇일까? 화법을 수능을 풀기 위해 읽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지나친 세부 정보는 피하고, 주제와 관련된 큰 흐름을 읽어내는 독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감이 안잡힐테니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예를 들어 22수능에 있는 '석류탕은 찜고기, 무, 표고 등에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찜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장국에 넣어 끓여 낸 음식' 이라는 정보가 있다. 이걸 다 외워야 할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화법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큼직하게 '석류탕에 대한 설명이구나'하고 넘어가면 된다. 하지만, '석류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는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요령을 알려주겠다.

1.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2. 주제와 관련지어 해당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파악한다.
3. 이때 2.는 '주제의 X'의 형식을 갖는다.
4.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석류탕에 대한 정보는 '석류탕의 레시피'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하다.
5. 단, 이러한 정보가 어느 품에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하자. 정보 제시 순서로 기억해도 좋고 물리적인 위치로 기억해도 좋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다. 대략적인 위치면 충분하다.

다만, 이렇게 읽으면서도 1문항을 위해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다. 1번 문항을 풀어나가는 속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밑줄 하나 쳐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되 표시만 해두면 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혹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당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는 이 사진이 '석류당'입니다. 여기서 석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의 이름입니다. 석류당은 석류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석류당은 찜고기, 무, 표고 등에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잣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장국에 넣어 끓여 낸 음식입니다.

(화면을 넘기고) 이 사진은 '난면'입니다.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입니다. 난면은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썰거나 분틀에 눌러 면을 만들고 이를 삶아 낸 다음 찜고기를 삶은 국물에 그 면을 말아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식디미방』에는 두 음식을 포함하여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다.
 - ②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다.
 - ④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⑤ 언급한 책의 역사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 분석>
 ○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발표임.㉠
 ○ 발표 장소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임.㉡
 ○ 청중이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할 것임.㉢
 ○ 청중이 음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것임.㉣

<실행 계획>
 ○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의 순서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음.㉤

- ①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에서 다루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 ②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활용해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 ③ ㉢: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집필 시기와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힌다.
- ④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설명한다.
- ⑤ ㉤: 청중과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한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석류당과 난면을 조리할 때 모두 찜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당시에는 찜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

학생 2: 석류당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학생 3: 석류당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냐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
- ③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해설

1-1) 안녕하세요? 1-2)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1-3)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1-4) 혹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1-5) (청중의 반응을 보며)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은 시네요. 1-6)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1-7)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말하기 방식> 발표 주제 선정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발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정리> 발표 주제가 등장했다. 주제에 입각한 독해를 위해서는 주제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의 주제는 '17세기 두가지 음식'이다. 발표에 참고한 문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가지 음식으로 석류탕, 난면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석류탕, 난면에 대한 정보가 등장했을 때 반응해주면 좋을 것이다.

2-1) 먼저 화면을 보시죠. 2-2) (화면에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2-3)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시는 이 사진이 '석류탕'입니다. 2-4) 여기서 석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 이름입니다. 2-5) 석류탕은 석류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2-6) 석류탕은 꿩고기, 무, 표고 등에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갖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장국에 넣어 끓여 낸 음식입니다.

<말하기 방식>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내용 정리> 석류탕은 앞서 언급한 발표 주제에 해당하는 음식이다. 따라서 집중해주어야 한다. 석류탕이 어원과 레시피가 소개되고 있다.

3-1) (화면을 넘기고) 이 사진은 '난면'입니다. 3-2)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입니다. 3-3) 난면은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썰거나 분틀에 눌러 면을 만들고 이를 삶아 낸 다음 꿩고기를 삶은 국물에 그 면을 말아 만든 음식입니다.

<말하기 방식>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내용 정리> 면은 앞서 언급한 음식 중 하나이다. 발표 순서에 따라 난면이 등장했구나. 정도로 알면 되겠다. 앞서 석류탕과 마찬가지로 어원과 레시피가 소개되고 있다.

4-1) 지금까지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4-2) 『음식디미방』에는 두 음식을 포함하여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4-2)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4-3) 제가 소개한 것은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4-4) 이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4-5)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방식>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책을 보는 것을 권하고 있다.

<내용 정리> 참고한 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추가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것을 권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반응률	7%	8%	2%	83%	1%

정답 해설

④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근거] 1-3)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풀이] 1) 책을 읽은 경험과 관련지으며 발표 주제를 '17세기의 두가지 음식'으로 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다.

[풀이] 1) 발표 중간중간에 요약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근거] 4-4) 이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풀이] 1) 청중에게 권한 것은 소개한 음식 이외의 음식에 관심이 있다면 책을 읽어보라는 것이었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다.

[풀이] 1)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는 등장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언급한 책의 역사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풀이] 1) 전문가의 견해는 등장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반응률	2%	1%	1%	1%	94%

<상황 분석>

-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발표임.....㉠
- 발표 장소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임.....㉡
- 청중이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할 것임.....㉢
- 청중이 음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것임.....㉣

<실행 계획>

-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의 순서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음.....㉤

정답 해설

- ⑤ ㉣: 청중과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한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다.

㉠ 1-7)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 2-3)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는 이 사진이 '석류탕'입니다.**

- 풀이 1) 청중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도 석류탕이고, 처음부터 먼저 소개하려 했던 대상도 석류탕이다.
2) 즉, 발표 순서는 변경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에서 다루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 1-4) 혹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 1-6)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 풀이 1) 음식이 소개된 문헌으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밝히고 있다.
2) 따라서 적절하다.

- ②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활용해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 2-2) (화면에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 풀이 1)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발표를 하고 있다.
2) 따라서 적절하다.

- ③ ㉢: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집필 시기와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힌다.

㉠ 1-4) 혹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 1-6)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디

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 풀이 1) 청중이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있는지 점검한 후, 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2) 따라서 적절하다.

- ④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설명한다.

㉢ 3-2)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입니다.

- 풀이 1) 청중에게 익숙한 계란과 냉면을 활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

- 2) 따라서 적절하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①	②	③	④	⑤
반응률	1%	11%	4%	83%	1%

<보 기>

- 학생 1** : 석류탕과 난면을 조리할 때 모두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당시에는 꿩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
학생 2 :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학생 3 :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정답 해설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 문기** **학생 1** : 석류탕과 난면을 조리할 때 모두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당시에는 꿩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
문기 **학생 3** :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 풀이** 1) 꿩고기가 당시에 흔한 재료였다는 것, 석류탕에서 핵심 재료를 고기로 보고 있다는 것은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가 아니다.
 2) 즉,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 것이다.
 3)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었다.

- 풀이** 1)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

- 문기** **학생 2** :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 풀이** 1) 학생 1은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듣고 있다.
 2) 하지만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

- 풀이** 1) 학생 2는 첫 번째로 소개한 음식인 석류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두 번째로 소개한 난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 풀이** 1) 학생 2와 학생 3 모두 사전 경험을 활용하지 않고 듣고 있다.
 2)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